

## 새만금 개발과 환경보전

###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 the Saemangeum Tideland

윤 경 섭\*  
Kyung-sup Yoon

#### I. 서론

새만금간척사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초가 되는 토지자원과 식량자원, 수자원 등 3대 기초자원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1986~1988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1년에 착공한 사업으로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의 해수면을 28,300ha의 육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 현재 방조제 19.1km가 축조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0.042ha로 전세계 평균 0.27ha의 1/6에 불과하며, 한 사람에게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농지면적 0.5ha의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수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국민 1인당 수자원 부존량은 2,900m<sup>3</sup>/년으로 세계평균 26,800m<sup>3</sup>/년의 11%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수자원의 개발이 없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UN은 이미 우리나라를 21세기의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가용토지자원의 부족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21세기에 예상되는 이러한 국가의 기초자원 부족문제를 국력을 모아 대비해 나가야 하며 새만금간척개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확고한 사업의 당위성과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척사업의 이러한 순기능적인 면은 경시되고 간척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갯벌의 보전가치만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전으로 주택, 공장, 도로 등의 수많은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농업도 많은 수확을 올리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필요이상 많이 사용함으로써 농촌의 물이 오염되고, 개구리나 반딧불이 등의 동물이나 곤충들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오염된 환경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쾌적한 환경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농촌에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오염되지 않은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농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 아니고 농업 그 자체가 자연환경이고, 환경산업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귀중한 생명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간척을 통해 만들어진 아산호, 대호호, 영산호, 영암호 등지에는 온갖 철새들이 무수히 날아들어 이 모습이 푸른 들녘과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간척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간척을 하면 무조건 갯벌이 파괴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갯벌 중에서도 이미 오염이 되어 갯벌의 가치를 잃어버린 곳이 많으므로 이러한 곳은 생산성이 높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여야 할 갯벌은 우리의 모든 힘을 합쳐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II.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 1. 담수호의 수질

최근 새만금사업에 따른 갯벌의 상실과 담수호수질의 문제를 제기하며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척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그것이 오히려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강 하구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간척이 아니더라도 바다로 흘러 보내는 귀중한 물을 재활용하고자 수문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화호의 예를 들어 담수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산호, 금강호, 삼교호, 대호호 등 여러 담수호의 물

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공업용수로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시화호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시화호의 수질오염문제는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간척의 부당성과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70~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강을 통해 바다로 무분별하게 방류함으로써 강물이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시화 되어 나타난 예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주도하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농업기반공사 및 환경부에서 제시한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시안)은 상류유역에서의 대책과 담수호 내부대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상류유역에서의 수질대책은 환경부와 전라북도에서 담당하며, 새만금 간척지 및 담수호 내에서의 수질대책은 사업시행자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류유역에서의 주요수질대책은 유역내의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확충,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율 제고, 왕궁특수지역 대책수립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간척지 및 담수호내부의 수질대책은 금강호 회석수 도입, 인공습지조성, 수질관리전용 침전지 설치, 저층수 배제시설(제염암거)설치 등이 계획되고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새만금호로 유입하는 유입하천(만경강, 동진강 등) 수질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오염물질을 미리 상류유역에서 정화

처리하여 유입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90년대 들어서 정부가 수질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므로써 '90년대 후반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하천 및 담수호의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거나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99년 말 현재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은 28개소에 589,925m<sup>3</sup>/일의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처리용량 기준으로 이미 계획목표(794,635m<sup>3</sup>/일)의 74%를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처리시설까지를 고려하면 계획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하게 되므로, 목표년도인 2005년에는 '환경부 시안'에서 고려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새만금호의 물이 농업용수로 본격 이용될 2012년까지는 7년간의 여유기간이 있으므로 필요시 2005년 이후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예측조건의 하나로서 고려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도 향후 새로운 선진 기술도입과 과학적인 시설운영으로 한층 향상될 것이고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져 새만금호의 수질은 예측치보다 더욱 좋아 질 것이다.

## 2. 갯벌과 철새 도래지 상실

우리나라 논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저혼성토임을 미루어보면 우리의 옛 조상들은 옛부터 갯벌을 간척으로 논을 일구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예로는 계화도 간척 후에 발달된 새만금 갯벌과, 아산방조제 밖이나 강화도 등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척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다 쪽에 다시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는 점을 입

증하고 있다. 서남해안에 펼쳐진 넓은 평야의 대부분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간척을 한 뒤에 다시 바깥쪽에 갯벌이 쌓이면 반복하여 간척을 하여 옥토로 만들어온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구를 막아 간척을 하면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단순화시킨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갯벌을 간척하면 그곳에 서식하던 조개나 게 같은 저서생물이 도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간척을 하더라도 갯벌에 도래하던 도요 물떼새들은 거의가 작은 새이기 때문에 한 마리당 평균 무게가 100g 내외로 새만금 갯벌을 찾아오는 도요류를 1년에 10만 마리로 생각하여도 새들의 전체 무게가 10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새들이 먹는 먹이 량도 많지 않아 인근의 금강하구나 곰소만 등으로 도래지를 옮겨도 먹이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성된 담수호는 해남 고천암호 등에서 보듯이 오리, 기러기류의 좋은 도래지가 되어 간척은 서식지를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류에게 적당한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완공된 간척지에서도 간척전보다 생태계가 단순화된 것만은 아니어서 간척전에 도요 물떼새가 서식하던 곳이 오리 기러기류로 바뀌어 졌다. 환경부의 1999년과 2000년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에서 보듯이 부남호, 간월호, 시화호 등 간척 담수호는 60종 내외의 조류가 도래하여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의 갯벌에 도래한 20 ~ 30종의 조류보다 훨씬 높은 종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도래하는 조류의 종류를 보더라도 간척전보다 많은 천연기념물이나 보호대상 조류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찾아오는 새들의 마리수도 간척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보아도 종이 단순화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해지는

변화이다.

또한 최소한의 갯벌 서식환경의 변화는 인구밀도가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먹고, 집과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토지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갯벌을 모두 보전하려면 식량소비, 그 중에도 특히 고기 소비량도 줄이고, 사회경제적인 활동도 제한하고, 인구의 증가도 억제해야 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추구권과 미래세대의 생존권도 제한을 해야 가능해 질 수 있는 일이다.

### Ⅲ.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새만금개발사업은 외곽시설로 방조제와 배수갑문, 담수호와 내부간척지의 농지조성으로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소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시설과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도록하여야 한다. 또한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정화 및 생태보전을 위하여 1,090 ha의 인공습지를 만들고, 오염물질이 담수호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로 돌려서 빼내도록 환배수로와 침전지를 설치하며, 물고기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갑문식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담수호 바닥의 오염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저층수 배제시설을 설치하고, 간척지 수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녹지대벨트도 만들 계획이다.

담수호 주변의 간척지에 만들어질 인공습지와 호수에는 수생식물과 민물고기 등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철새가 모이도록 시설을 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어린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류관찰대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간척농지는 친환경농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의 환경친화적 추진과 관련하여 수질 및 생태보전, 경관조성 등을 위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고려 될 수 있다.

#### 1. 친환경적인 방조제 및 배수갑문 건설

##### 가. 방조제 축조

방조제를 축조하는데는 많은 성토재료가 소요되므로 주변 야산들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량의 60%는 해사를 성토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방조제 내측법면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소재로 다룰 수 있으며, 방조제에 풍차를 설치하여 천연자원의 이용을 극대화 할수 있고, 방조제 내측 도로차선은 자동차를 타고 주행시 바다를 관망할수 있도록 일정 구간을 높게 설치하여 주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수갑문 부근에는 자재적치장의 부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정원 갖춘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방조제 외측에는 잠제를 설치하여 수산자원과 갯벌의 조성을 촉진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 나. 배수갑문에 어도 설치

###### 1) 목 적

○ 뱀장어, 은어, 승어, 황복, 웅어, 참게 등 회유성 어패류의 원활한 소상 및 강하로 생태계 보전

###### 2) 설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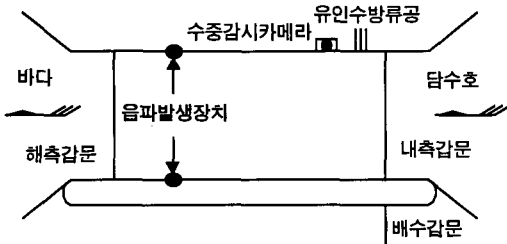
가) 어도 형식 : 갑문식 어도

나) 어도 제원 및 특징

구 분	가력배수갑문	신시배수갑문
갑 실 크 기 (B×L)	4×30m	16×65m
유 인 수 량	0.5m <sup>3</sup> /s	0.8m <sup>3</sup> /s
유 인 수 방 류 방 식	양수+자연방류	양수+자연방류
어 류 유 인 시 설	음파발생 장치 <sup>1)</sup>	음파발생 장치 <sup>1)</sup>
유 지 관 리 시 설	폐쇄회로 장치 <sup>2)</sup>	폐쇄회로 장치 <sup>2)</sup>

주: (1) 갑실내에서 나가지 않는 어류의 빠른 퇴실을 위하여 배수갑문 앞에 물고기가 싫어하는 음파를 발생시킨  
 (2) 가력배수갑문은 일반인이 어류의 이동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도의 내측갑문 앞에 수중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실에는 모니터 설치  
 (3) 신시배수갑문은 일반인이 어류의 이동상황을 직접 유리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관찰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생태학습 공간 및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다) 어도 구조



유통시키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나. 친환경적인 담수호 조성

1) 인공습지 조성

가) 목 적

○ 새만금호에 갈대 등 정수식물을 식재하여 만경강·동진강 물, 계화하수처리장 및 부안분뇨처리장의 방류수를 정화한 후 호수에 유입하여 수질개선을 도모

○ 갈대 등 식물이 식재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조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친생태적인 호수조성에 기여

○ 인공습지와 연계하여 환배수로 및 저류지를 설치하여 정화기능 확대

나) 조성규모

○ 습지 : 총 5개소 1,090ha

2. 담수호 조성

가. 담수호화 시기 조절

통상 간척지개발로 조성되는 담수호는 방조제 체절과 동시에 담수호화를 실시하여 호내의 해수생태계에서 담수생태계로 급격한 환경변화를 피하도록 배수갑문 조작으로 해수를

구 분	위 치	습지면적 (ha)	식생면적 (ha)	기 능
계		1,090	849	공통적으로 조류 서식처 제공
인공습지	만경수역	400	280	만경강 물의 정화
	동진수역	200	140	동진강 물의 정화 김제하수처리장 방류수 정화
호안습지	만경수역	270	243	만경수역 물의 정화
	동진수역	180	162	동진수역 물의 정화
산화습지	계 화 면	40	24	계화하수처리장, 부안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정화

- 환배수로 : 8조 83 km 설치
- 내부개발지 중 저지대 2,163ha를 개발 유보하고 습지, 저류지화
- 당초 양식장으로 계획한 2,000ha 개발 유보함으로써 내부개발지오염부하 억제
  - 다) 기대효과
  - 정수식물 식재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 갈대숲 조성으로 조류의 서식공간 제공 및 자연생태공원 활용
  - 인근 도시민의 휴양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 3. 내부 간척지 개발

#### 가. 녹지대 조성

##### 1) 목 적

○ 염사(鹽沙)로부터 내부개발지내 작물보호와 토사침식을 억제함으로써 호수내 오염물질 유입을 억제하고 내부개발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간확보

○ 여름의 해풍과 겨울의 한풍을 막아주는 방풍림 조성

##### 2) 개발지 현황

○ 김제, 만경 등 광활한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는 관계로 녹지공간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녹지자연도(DGN : Degree of Green Naturality)가 평균 1.39로 매우 낮음

○ 주요 유입하천은 홍수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개수로 수변식물이 아주 빈약함

○ 본 지역의 풍향은 여름에는 서풍이 강하게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

##### 3) 조성계획

○ 녹지대는 지구 경계선과 방수제를 따라 평지에 두툼한 언덕을 쌓아 폭 10~50m의 belt를 만든다.

○ 언덕에는 주변지역에서 자생하는 잡채식

생 중에서 4-5종을 선정하여 어린 식물을 혼식하되 언덕의 중앙에는 교목을, 변두리에는 작은 관목을 밀식한다.

○ 녹지대의 수목은 해풍에 강하고 다습한 토양에서 자라는 수종을 선정하여 해송(곰솔), 적송, 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 갈참나무 등을 식재한다.

#### 나. 생태공원 조성

##### 1) 목 적

○ 자연의 생태적 원칙과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특성에 입각하여 자연지역과 유사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적 과정이 일어나게 함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과 생태적 순환과정의 회복과 더불어 자연관찰 및 교육의 기회 제공

##### 2) 도입시설

구 분	세 부 시 설
생태적 서식시설	생태연못, 인공습지, 관목숲, 다공질 공간을 활용한 곤충 서식처, 부도, 새집, 반딧불이 연못, 잠자리 및 개구리 연못,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
관찰 및 학습시설	자연학습관, 조류관찰대, 목제데크, 노방식물원, 자연현상을 이용한 놀이시설 등
관 리 시 설	방문객 센터, 관리용 도로,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등

##### 3) 기대효과

○ 야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개체수의 증대와 종의 다양화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 자연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

○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훼손되고 약화된 생태적 순환과정을 강화, 유지하여 지속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

○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

○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에 있어서 점적 혹은 면적 요소로 기능함으로써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다. 내부간척지 친환경 농업 도입**

**1) 목 적**

○ 화학비료 절감으로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 추구

○ 동·식물의 종 증식으로 먹이사슬의 기능성 확보

○ 수질, 토양 등 환경정화기능 보장

**2) 사업내용**

○ IPNM사업 (병해충 및 작물양분종합관리)

- 수질, 토양 등 재배환경을 조사하여 적기, 적량의 농약·비료 살포

○ 유기농법 실행

- 축산 부산물의 퇴비화, 오리농법, 잉어농법 등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 겨울철에 푸른들의 자연 경관을 제공하고 지력증진과 사료 작물재배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환경농업 실천 마을조성 등

- 환경농업 직불제, 환경농업육성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실천마을조성의 파급 효과도모하여 수질·토양 등 지속 농업기반을 유지하게 한다.

**라. 환경친화적 배수로 계획**

**1) 목 적**

○ 농경지로부터 유출되는 침전성 오염물질 제거, 미생물과 조류에 의한 분해기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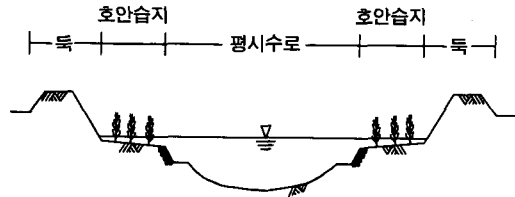
으로 오염물질의 자연적인 정화유도

○ 야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개체수 증대 및 종의 다양화에 기여

**2) 설치계획**

○ 규모가 큰 배수로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자라는 갈대 등 수생식물의 식재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 수변구역은 아주 적은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고 평상시 수심은 0.3 ~0.5m 정도를 유지하여 갈대 등 수생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환경친화적 배수로 단면도

**IV. 새만금사업의 비전**

**1.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식량단지가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업단지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평야인 김제, 만경들 앞에 새로운 김제, 만경들이 하나 더 만들어져, 이 들에서 우리 국민 150만명이 먹을 양식을 공급할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의 식량사정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백만의 동포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영양결핍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아 농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후도 논농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북한에서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개간할 수 있는 산지를 모두 다락밭으로

만들고 서해안의 여러 곳에 간척을 하여 농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지금도 농지는 부족하고 비료, 농약 및 에너지의 부족이 겹쳐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에서도 곡물 자급률이 30%에 머물러 많은 양의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에 북한의 식량난까지 겹쳐지면 식량문제가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새만금사업은 우리 후대들의 먹거리 준비는 물론 통일을 대비한 식량확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나가야 할 사업이며 새로이 조성될 새만금 넓은 들판을 친환경농법과 첨단과학이 도입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농업단지가 될 것이다.

## 2. 21세기 서해안시대의 미래를 여는 지역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새만금호에 모이는 매년 10억<sup>3</sup>m<sup>3</sup>의 풍부한 물은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활용되어 이 지역의 젖줄이 될 것이다. 방조제 축조로 교통이 좋아지면 새만금 들판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과 이 지역의 공산품과 특산물의 유통이 활발해져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새만금의 푸른 들과 넓은 담수호가 합쳐지는 경관과 방조제 외측의 수려한 해안경관이 어우러지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고군산군도와 근처의 변산 국립공원이 연결되어 세계적인 국제 휴양관광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3.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간척지구가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호내의 다

양한 습지, 생태공원, 자연생태학습장, 대규모 청정농지와 깨끗한 담수호는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친환경간척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새만금호와 주변의 넓은 인공습지에는 수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람사(Ramsar)습지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습지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환경선진국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인간과 자연, 문명과 환경,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밝은 미래를 열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농림수산부,농업진흥공사, 1989.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2. 농림수산부,농업진흥공사, 1989.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3. 농림수산부,농어촌진흥공사, 1991.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사업계획서.
4. 농업기반공사, 2000. 새만금사업 추진현황(내부 자료).